

거창군, 2024년 제1회 창포원 맨발걷기 축제 성공리에 마쳐

[한태수]

[한국공보뉴스/경남광역본부] 한태수 기자 = 맨발걷기 400명, 홍보관 운영 2,000명 참여, 건강에 대한 뜨거운 관심



거창군은 지난 18일 거창창포원(잔디광장, 맨발걷기 코스)에서 2024년 제1회 창포원 맨발걷기 행사가 이병철 부군수, 이흥희 거창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정종은 맨발걷기운동본부 거창지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운동본부 지회 회원과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간단한 준비운동 후 창포원 일원 2.1km 코스로 맨발걷기를 진행했고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했다.

또한 맨발걷기 투어에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코스 중간에 치매 OX퀴즈 프로그램을 준비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군은 작년 12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병철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거창창포원 행사를 시발점으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어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 나가길 기대하며 군에서도 맨발걷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건강을 지키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흥희 거창군의회장은 축사에서 "재산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맨발걷기로 지친 몸을 달래고 활력을 얻으시길 바라며 주민들이 걷기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종은 맨발걷기운동본부 지회장은 맨발걷기에 대한 소개로 지압, 접지,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꺾쇠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맨발걷기를 꾸준히 실천하여 만성질환, 치매 등 현대인의 질병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보건소는 아리미아 꽃 축제기간에 부대행사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예방, 치매극복하기, 정신적 정서지원을 위한 4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건강상담, 보건소 추진사업을 홍보해 많은 군민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즐거움을 더했다.

taesu8780@hanmail.net